

###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 4 경기장 안내 만전을

광주시체육회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제87회 김천 전국체전'에서 '인간 내비게이션'(navigation)이 되어야 했다.

자원봉사자 1천200여명이 경기장 안내에 투입됐지만, 이들의 활동지는 김천 일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기장은 개최지인 김천뿐 아니라 안동·구미·포항 등 경북 일대에 넓게 흩어져 있어서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 수능수험생 돕듯 선수단 안내하자

급기야 경북도체육회는 매일 아침 16개 시·도 체육회 본부에 길 눈 밝은 김천지역 개인택시 운전사 2명을 각각 배치했지만, 이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는 수없이 경기단체 임·직원들은 경기 전 날 사전 답사를 다녀오는 등 경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움직여야 했다.

잔치상만 잘 차려봐야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하면 허사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뽐낼 수 있도록 '제88회 광주 전국체전'에선 경기장 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8천500만 원을 들여 경기장 6곳과 주요 교차로·가로변에 528개의 안내표지판(264개·경기장 주변 안내)·유도표지판(·도로 교차로 안내)을 설치하고 있다.

경기장마다 장소안내 표지판(66개 2개씩)·주차안내 표지판(·)도 마련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장을 찾아가 수 있도록 '시내 버스노선 및 행선지 안내도' 60개를 제작,



버스 정류장 곳곳에 부착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도 산하 경기단체와 함께 경기장 안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종목별로 전국 경기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장과 주변 교통사정 등을 사전에 둘러보며 경기 당일 혼선을 줄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시체육회 전학철 사무처장은 "김천 시민들이 친절하게 길안내를 해주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며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안내 표지판과 시민들의 친절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6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에서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1천여 명의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순천 37.5도를 최고로 광양 35.7도, 나주 34.9도, 구례 34.4도, 광주 32.1도까지 올랐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수능 28일부터 원서접수

### 접수증 발급된 선택영역·선택과목 변경 불가

11월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8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교묘에서 시작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12일 간(토요·공휴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서 응

시원서를 교부·접수하며 졸업자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접수할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접수한다.

원서를 제출할 때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모자나 짙은 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수능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원서접수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고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희뉴스

## 동구 금남로 공원 확장·조성

### 인접 노후건물 18억들어 매입 내년 4월까지 새단장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옛 한국은행 터)의 미관을 크게 해쳤던 인접 노후건물이 철거돼 공원으로 확장·조성된다.

광주시는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금남로공원의 한쪽 모서리에 위치한 낡은 식당 건물을 매입, 철거한 뒤 내년 4월까지 시민휴식공간으로 단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당건물이 철거되면 금남로 공원의 면적은 현재 3천490㎡에서 300여㎡가 늘어나게 되며, 공원의 모양도 안정된 직사각형을 띠게 된다.

이 건물은 지난해 시가 매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미뤄졌다.

총 165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완공된 금남로공원은 인공폭포와 실

개천, 안개분수,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 등을 갖춘 시민의 쉼터다.

또 야외 무대에서 수시로 공연이 열리고 소나무·팽나무·노티나무 등 전통 수종을 비롯한 25종 5천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금남로공원은 시가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서구 화정동 옛 국정원 부지 및 경찰청 차고지 등과 함께 '도심 5대 공원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편 우산공원과 상록공원(옛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충격흡수 재료 의무화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뜨려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바닥재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바닥재로 모래를 쓸 경우에는 납·크롬·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놀이거구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과 그물 등의 간격은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커야 하며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나 판자 사이의 간격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연희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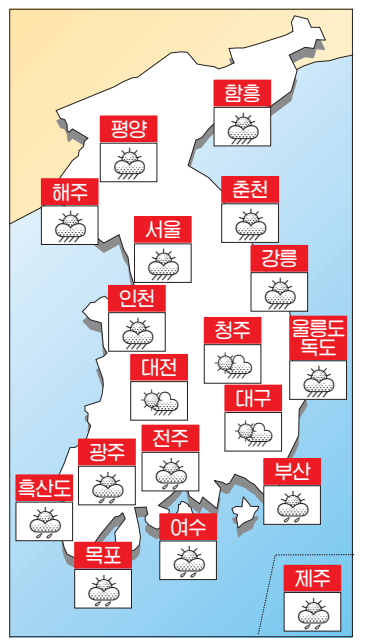
## 더위 식히는 소나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 8월 27일

(음 7월 15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고 소나기	24~30℃
포항	구름 많고 소나기	25~31℃
여수	구름 많고 소나기	24~30℃
수원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대구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부산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인천	구름 많고 소나기	23~31℃
대전	구름 많고 소나기	23~32℃
전주	구름 많고 소나기	22~31℃
울릉도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독도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제주	구름 많고 소나기	24~31℃
충청도	구름 많고 소나기	23~30℃
강원도	구름 많고 소나기	24~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1:21 썰물 < 06:51  
여수 밀물 < 08:21 썰물 < 14:21

▲해돋이 06:01 ▲해질 19:07 ▲달돋이 18:31 ▲달질 04:15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화)	29(수)	30(목)	31(금)	9/1(토)	2(일)
날씨						
최저/최고	24/30	24/31	23/30	23/30	23/30	22/31

## 폭염에 '모기와 잠자리 희비'

### 모기 번식력 급감, 잠자리는 서식환경 좋아져 급증

### 오늘 최고 40mm 소나기

폭염이 계속되면서 모기와 잠자리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더위 먹은 모기가 감소한 반면 잠자리떼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26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에 따르면 지난 8월6일부터 12일까지 채집한 모기 개체수는 1만8천34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637마리) 줄었다.

이는 폭우와 강풍으로 하천·논·밭 등지에 있던 모기 유충이 쓸려간데다,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번식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기 번식에 적합한 온도는 27~29도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잠자리의 경우 서식 환경이 예년보다 좋아졌다.

초여름부터 가을 초까지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는 잠자리는 연평균 25도 이상의 기온을 좋아하는 아열대성 '뽕잠자리'다. 폐지어 날아다니는 특성을 지닌 이들은 5월 말께 동남아 등지에서 날

아오는데, 6~7월 광주 등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돼 있다가 중부지방을 거쳐 북쪽으로 날아간다. 번식기는 기온이 가장 높은 7~8월이며 무더위가 지속될수록 번식력은 더욱 왕성해진다. 수온이 18도 이상만 되면 우화(羽化·곤충이 생식능력이 있는 상태로 되는 것)가 가능하다.

보건환경원 관계자는 "날씨가 민감한 곤충의 경우 온도에 따라 개체 수 여부가 달라진다"며 "올해의 경우 평년기온보다 1도가량 높아 잠자리 마릿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광주·전남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또 오는 9월2일까지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만조 시 바닷물의 유입이 많아 해안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된다. 지난 24일부터 발효된 폭염주의보(하루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열지수가 32도 이상)는 26일 오후 5시 해제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KT&G 기업 이미지 광고도

### 담배광고 해당 방송불가 판정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6일 담배 제조·판매회사인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기업 이미지 광고마저 담배 광고로 취급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기업 이미지 광고가 결국 사업적 이익을 꾀하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호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기업광고는 '넓은 의미의 담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

시했다. KT&G는 지난해 4월 라디오 방송에 기업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 기구가 두 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희뉴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한반도솔라텍(주)에 투자하십시오**

#### 태양광 발전사업 토질 관상형

- 태양광 발전 시설 선정 및 설계 지원
- 행정처리에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투자자 모집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기회

- 태양광 발전 시설 선정 및 설계 지원
- 행정처리에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투자자 모집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기회

- 태양광 발전 시설 선정 및 설계 지원
- 행정처리에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 행정비용 지원

**한반도솔라텍(주)**

태양광 발전사업 선두기업

☎ 02-554-0000

☎ 02-554-0000